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한승연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018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은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이전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을 담당해 왔으나, 공공건축 조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센터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건축에 집중하고, 지역 센터는 해당 자치단체를 전담하도록 하는 역할 구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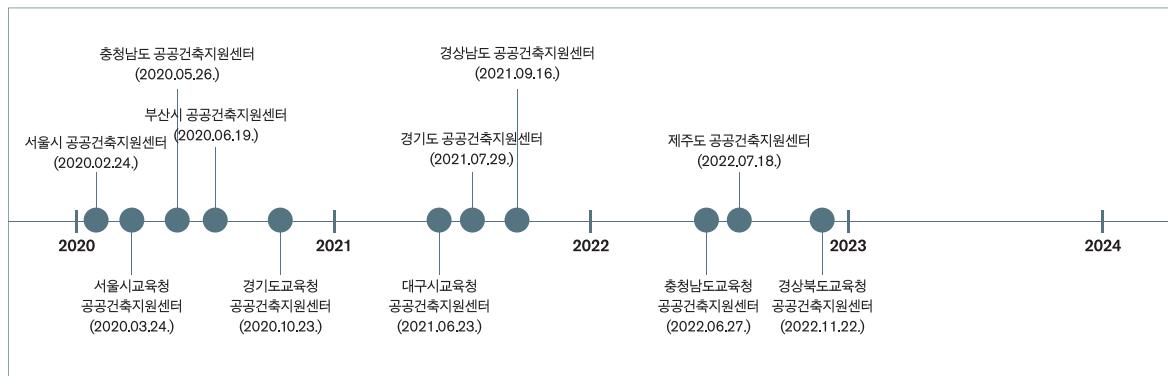
제도가 시행되자 지역 센터 설립에 적극적인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가가 시작되면서 2024년 5월 기준 총 11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정되었다.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청남도·부산시·경기도·경상 남도·제주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가 인가되었고(인가순), 해당 시·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충청남도, 경상북도(인가순)는 교육청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교육(지원)청의 발주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지역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국가 센터의 자치단체(광역·기초·교육 청) 지원 비율은 2020년 79.1%에서 2022년 57.4%로 감소하게 되었다.**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사업은 센터 설치 이전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p.4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시기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지역 센터 설립이 보다 확대된다면 이러한 역할 구분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사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는 상이하지 않으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 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한정된다. 반면 지역 센터는 관할 지역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획단계 초기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지역 여건과 실정이 반영된 좋은 공공건축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지역 센터 설립이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것이다.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기획단계 수행주체 차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는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설계공모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법·제도에서는 건축기획 업무 대행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까지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설계공모는 업무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설계공모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의무 절차로 대부분 센터가 설치된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은 법 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른 법정업무와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는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매달 공유하는 운영현황 자료의 일부이다. 사전검토와 자문에 대한 응답은 지역 센터의 기본 업무로 모든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업무이나 일부 센터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센터마다 조직과 인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운영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2024.4.30. 기준)

지역 센터 (인기순)		법정업무			지원업무			기타
		사전 검토	자문 응답	관계자 교육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광역	서울시	○	○	×	○	○	○	홍보
	충청남도	○	○	○	×	×	-	연구
	부산시	○	○	○	○	○	-	-
	경기도	○	○	○	○	×	-	-
	경상남도	○	○	○	×	○	-	-
	제주도	○	○	×	×	○	○	-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	○	×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경기도교육청	○	○	○	○	○	-	-
	대구시교육청	○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
	경상북도교육청	○	○	×	×	○	-	-

출처: 2024년 4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월간 운영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있다. 센터에 따라서 법정업무뿐만 아니라 건축기획 업무 대행, 설계공모 운영 대행, 공공건축 관련 연구 등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월별 업무수행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연간 사전검토 신청 건수는 지역에 따라 최대 110건에 달하며, 6개 광역자치단체 센터는 연간 평균 61건을 처리하였다(2023년 기준). 연도별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처음 설치된 2020년은 5개 센터 합계 151건, 2021년은 8개 센터 합계 361건, 2022년은 10개* 센터 합계 379건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2023년은 11개 센터 합계 512건으로, 2023년 전체 사전검토 수행 건수의 38.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세부 절차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검토 수행 과정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 사업에 한해 현장 방문과 기관 면담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현장 방문을 필수로 포함하는 등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의견서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강화된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등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건축기획의 기술〉, 〈건축기획 자료집〉, 〈설계공모의 기술〉, 〈설계공모 자료집〉 등 공무원과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로는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 관련 발간물 제작 및 홍보, 건축기획 업무대행 등이 있다. 앞서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례처럼 많은 센터가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등 기획단계 업무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 기능의 발간물을 제작하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달리 시·도에서 조례나 지침 등으로 운영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도의 실무자가 발간물을 참고하여 공공건축 조성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불어 서울시와 제주도 등의 경우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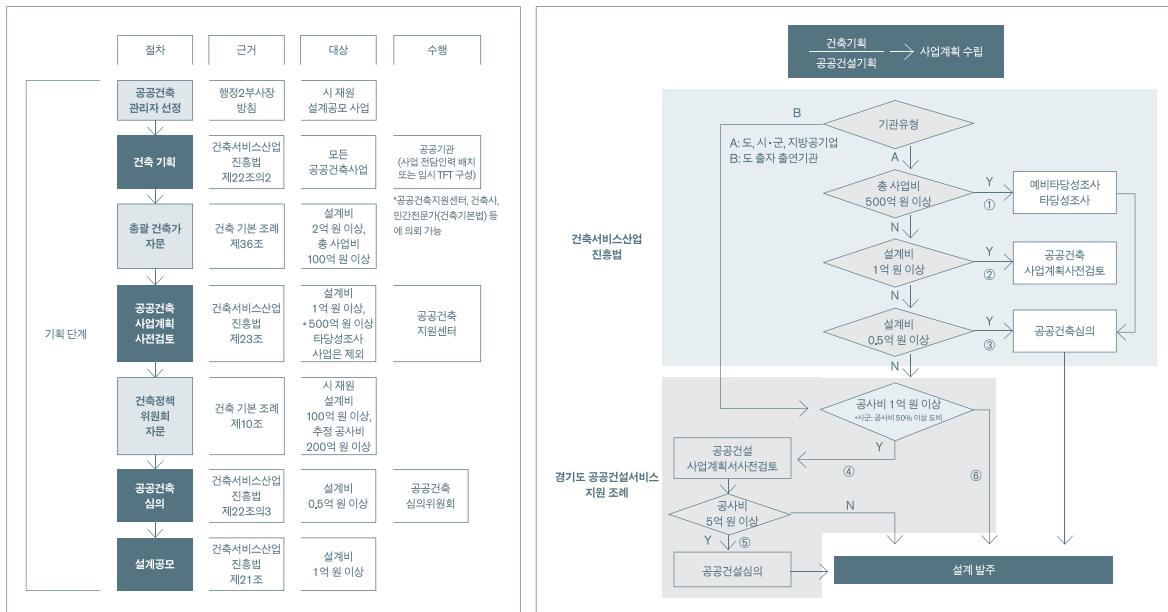
* 경북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년 인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2023년부터 시작하였다.

** 2024년 3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월간 운영현황 내부자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p40)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획단계 안내 등의 홍보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획 업무는 법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모를 통해 건축기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은 센터의 법정업무가 아니므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부서에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부서의 인력 일부가 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와 공공건축심의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 기획단계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는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접수 건수가 많아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기획단계의 절차 외에도 제주도 공공건축지원 센터는 센터 전담인력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업무도 맡고 있어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의 업무지원의 일환으로 공공건축가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의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 절차 예시



출처: (좌)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2023, p.9), (우)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2023, p.15)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의 협력

개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정업무와 기획단계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 센터와 협력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제 운영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센터마다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고, 공공건축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과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참고자료를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관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고 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협력하고 있는 주요 업무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지역 협의체 회의다. 협의체는 2020년부터 매년 1~2회 국가 센터 주도로 국토교통부와 국가 및 지역 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2020년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업무수행 효율화(2021년), 사전검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2022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업무수행 현안(2023년)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하반기에 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사업은 사전검토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2020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국가와 지역의 사전검토 데이터를 종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이 국가-지역 워크숍의 첫 번째 협력업무로 논의되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데이터 통합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고,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DB 시스템에 지역의 사전검토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 다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마다 데이터 항목(신청서 및 의견서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 구축 방식은 단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 추진 사례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의체
세미나(2022.10.1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세미나(2022.6.9.)

세 번째는 센터 미설립 자치단체에 대한 설립 지원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센터 미설립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과정 및 운영 성과를 소개하였다. 부산시·경기도·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미설립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세미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이 있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설립 관련 자문에도 상시 대응하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향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

모든 자치단체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절차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수행, 사전검토 신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을 하여야 한다. 시·도에서는 사전검토를 제외한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설계공모 운영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의 통합적인 공공건축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미설립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립 지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 사업추진 절차를 정립하고, 기획 단계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 교육, 사전검토 업무 수행 등 조직 내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와 이미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 공공건축 기획단계 일련의 과정을 센터 업무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사업 추진 방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네트워크 구축 단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협력형 지원단계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2022년까지 국가와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년부터는 협력형 지원단계에 돌입하여 국가와 지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가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올해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주요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동사업 추진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등의 업무 과정에서 또는 지역 건축문화제 기획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나, 센터 간 우수 사례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 공공건축 조성 사례 통합관리 및 답사 프로그램 기획 등 국가-지역 협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는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장기 협력과제를 기획해 볼 수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달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계부서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역의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단계의 업무효과를 검토하며 이후에 조성될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내실화 방향 등을 고민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건축공간연구원.
- 2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 경기주택도시공사.
- 3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건축기획의 기술(2023년 개정판). 서울특별시.